

스위스 취리히

글·사진 | 허용선, 권강길, 김나스트

스

임산부와 들숨과 일숨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이다. 모든 것을 알
 고 싶을 때의 산출기이다. 양자가 도처에
 있다. 무가정의 산출기이다. 좀처럼 밝혀있어 퍼스
 나임을 띠는 스위스다. 모든 작지만 유럽의 작은 거인이라
 스위스 최대의 도시인 취리히는 리마트강과 취리히 호수 곁에
 있는 가장 작은 고도(古都)이다. 제네바가 스위스서쪽 관문이라
 한 취리히는 동쪽 관문이라 할만큼 많은 외국인 방문자들이 찾
 아온다.

얼마 전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머서 휴먼 핀앤드 스위스 컨설팅은
 전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보건, 교육, 교
 통 등 각 분야를 평가한 결과 취리히가 최고점을 얻었다고 발표
 했다. 취리히는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위에는 제네
 바가 있었다. 맨루버가 공동으로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나

▲ 구시가지에는 교색장엄한 건축물이 많다.
 거니킨 취리히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등 하던

쁜 도시로는 콩고의 수도 브라자빌이 뽑혔다. 전쟁 위험에 놓여있는 이라크 바그다드는 213위, 뉴욕 44위, 런던 39위, 도쿄는 26위에 각각 올랐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93위를 차지했다.

지구촌 215개 도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 수질오염, 범죄발생률, 은행 서비스 등과 같은 '삶의 질' 차원에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살기 좋은가에 대한 조사 결과였는데 이처럼 취리히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취리히가 어떤 매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모습과 높은 소득수준, 잘 보존된 중세풍의 건축물, 우수한 학교,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금년 초 취리히를 방문했을 땐 눈이 내리다가 다시 맑아지는 등 변덕스런 날씨를 보였다. 하지만 안내인에 의하면 사계절이 분명하고 기후 역시 온난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취리히는 가늘고 긴 형태의 취리히 호수와 이 호수에서 발원하는 리마트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다. 취리히 중앙역에서 취리히 호수까지 약 1.6킬로미터는 반호프라고 불리는 화려한 거리이다. 프랑스의 상제리제나 뉴욕의 5번가와 마찬가지로 상점·레스토랑·금융회사 등이 뻗뻗히 몰려있는



▲ 가족과 더불어 다니는 시민들. 취리히의 국민소득은 유럽의 최상층에 속한다.

변화가이다. 많은 사람들은 반호프 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거리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스위스의 금융기관 본점과 외국의 큰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취리히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근검, 절약하여 모은 돈을 유능한 상인들이 잘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보장주의도 세계 각국의 많은 돈, 특히 은밀한 돈을 예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취리히는 금융과 상업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교육”을 주창한 위대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와 스위스 최고의 문인인 고트프리트 켈러도 취리히 출신이다. 취리히 공과대학은 노벨상을 받은 학자를 여러 명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한 때 이곳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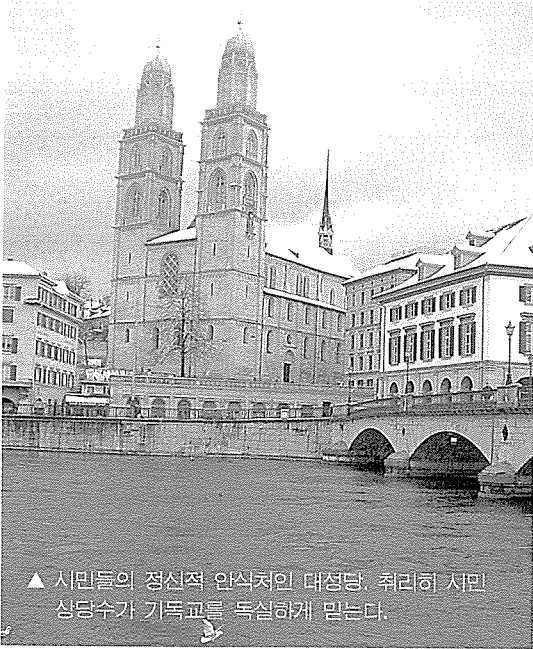


▲ 스위스의 자연환경은 수려하다. 취리히 인근의 녹지대 역시 푸르름이 넘친다.

린덴호프 언덕은 기원전 로마인들이 성채를 만들었던 곳이다. 이 언덕에 오르면 멀리로는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의 연봉들이 보이고, 가까이로는 고풍스런 옛 모습과 현대적인 도시 모습이 조화를 이룬 취리히 시가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린덴호프의 구도로를 따라 걸으면 로마시대에 깔았다는 돌포장길이 나타난다. 양옆에는 오래된 레스토랑이나 상점들이 많으며, 유서 깊은 성당들도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그로스윈스터 성당은 리마트강을 사이에 두고 프라우윈스터 성당을 마주보고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로마네스크 성당으로 종교개혁가인 츠빙글리가 1529년부터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고 있다. 그로스윈스터 대성당의 꼭대기에 세워진 18세기 돔으로 장식된 높이 60m인 쌍둥이 고딕식 탑이 먼 곳에서도 잘 보인다.

수 천년 동안 취리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살았다. 수렵인·정착민·선교사·침입자·수공업자·관광객·기술자·노동자·상인·예술인 등이 취리히에서 생활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또한 취리히를 다른 도시보다 뛰어난 강력한 주거지로 만들었다. 오늘날 취리히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비해 도시 면적과 거주인구는 훨씬 작지만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활동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점이



▲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인 대성당. 취리히 시민 상당수가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다.

“작으면서도 큰 도시”를 지향하는 취리히를 잘 대변해주는 것이다.

여로부터 취리히 시민들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다. 1351년 스위스 연맹체에 가입하고 종교개혁이나 계몽사상 도입 등 굵직한 사회적인 문제에 활동적으로 대처했다. 취리히에 최초로 정착한 민족은 켈트족이었는데 그들은 약 1만년 전인 빙하기 말에 사슴 떼를 쫓아 찾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반해 그대로 머물렀다. 그 후 고대 로마인들이 4백년 정도 살다가 떠난 후 여러 민족들이 연이어 살았다.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풍경이 좋아서 기독교 수도원들이 곳곳에 세워졌으며 신성 로마제국의 왕들도 별장지로 취리히 지역을 즐겨 찾았다.

문화의 도시답게 취리히에는 음악과 오페라·발레·뮤지컬 연극 등이 연이어 공연된다. 거리에선 청소년들의 다양한 거리축제가 열린다.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상설전

시관 같은 곳에서는 취리히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참신한 예술작품을 보여준다. 밤이 되면 취리히는 아주 조용해진다. 가정을 중요시하므로 시민들이 일찍 귀가하기 때문이다. 나이트클럽과 식당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점도 저녁 무렵 문을 닫는다. 마치 활기찬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신비스런 도시모습이다. 72



▼ 강변에 자리한 중세시대부터 세워진 건축물들. 박물관이나 교회 등 공공건물이 대부분이다.